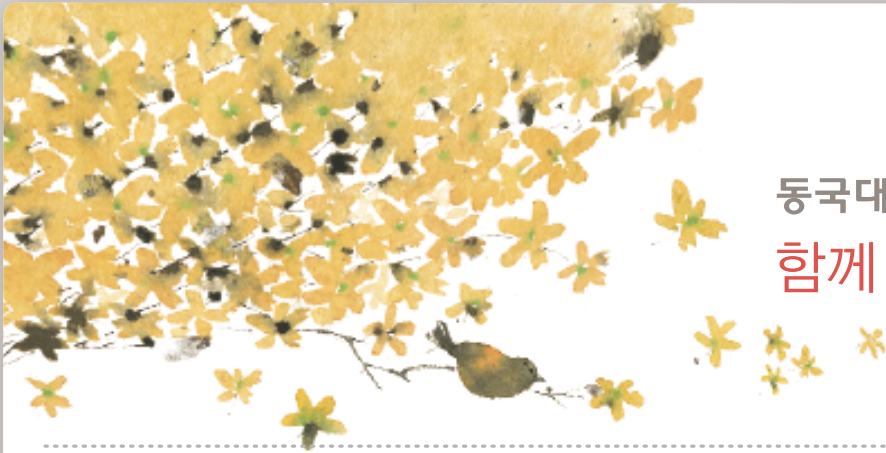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불기2560년 부처님 오신날 맞이 성타 큰스님 초청법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1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층 대강당에서 성타 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약 400여 명의 교직원과 환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공연으로 가수 아웃사이더, 윙크의 공연에 이어 연꽃누리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시작했다. 성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등명(自燈明)과 법등명(法燈明)에 대해 설명하며 “불교에는 여러 덕목과 가치가 있는데 궁극적인 가치는 지혜를 성찰하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등불을 밝히고 가장 낮은 곳에 함께 임해 소통과 공생 공존을 해야 하며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지혜를 성취함으로써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통해 참된 행복과 고뇌를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이 오신 참뜻이다.”라고 전했다.



02 미얀마 만달레이 큰스님 일행 방문

불기 2560년 봉축법요식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미얀마 만달레이 큰스님 일행이 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손가락이 붙은 아이 등 3명의 미얀마 환우에게 수술을 해 주기로 한 본원의 의료시설과 환경을 둘러보기 위한 자리였으며, 큰스님과는 지난 2월 ‘해외나눔 의료사업팀’이 환자발굴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하였을 때 닿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니따피리비운따 큰스님은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환우들이 수술 후 입원하게 될 VIP병동 등을 둘러보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환경이라고 극찬하고,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될 아이들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03 동국대학교병원, 서울과 고양시 연등축제 참여

동국대학교병원은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서울과 고양시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교직원 약 700여 명이 참석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했다. 4일 열린 고양시 연등축제는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의 봉축 법요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화정동 중앙공원과 주변에서 약 1시간 동안 연등을 밝히는 제등행렬로 막을 내렸고, 7일 열린 서울시 연등축제에서는 동국대학교를 출발하여 종로에서 조계사까지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올 한해 건강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연등을 밝혔다.



04 동구보건소 ‘관상동맥질환 예방’ 건강강좌 개최

심장혈관내과 김용석 교수는 4일 동구 보건소에서 7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교수는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등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심근 손상 및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앞가슴 부위에 30분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 호흡곤란,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가장 근접한 병원 응급센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및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며, 식생활 개선 및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일산동구보건소와 함께 매달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